

2020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 2017년 이후 최고

지난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표집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은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1월 고2, 중3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으로 조사해 국어, 수학, 영어 학력을 평가한 '202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 상승

중3 국어 과목에서 보통학력(3수준)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2019년 82.9%에서 지난해 75.4%로 7.5% 하락했다. 중3 영어 과목에서도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72.6%에서 63.9%로 8.7% 줄었다. 고2의 경우 국어에서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77.5%에서 69.8%로 7.7% 하락했다. 중3 수학, 고2 수학과 영어에서도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하락했다. 다만 교육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미달(1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도 중3과 고2 모두 확대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3 국어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4%, 영어의 경우 7.1%로 전년 대비 각각 2.3%, 3.8% 확대됐다. 중3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3.4%였다.

고2 국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8%(전년 대비 2.8%↑), 수학 13.5%(4.5%↑), 영어 8.6%(5.0%↑)로 역시 전년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표집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중3과 고2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일제히 최고로 치솟았다.

교육부 공식 통계로 코로나19발 학력 저하가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그간 일선 학교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발 학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학력 저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일부 시·도교육청에 그쳤다.

교육부 “등교 축소로 학업 수준 저하”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 역시 하락했다. 지난해 학교생활 행복도가 ‘높다’고 답한 중3 학생들의 비율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

59.5%로 2019년에 비해 4.9% 하락했다. 고2도 3.5% 떨어진 61.2%였다.

교과 학습에 대한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 의욕도 2019년과 견줘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중3과 고2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의 비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축소, 원격 수업 전환에 대한 적응 등으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의욕이 떨어져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저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학년도 비슷한 원인으로 학력이 저하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학력 결손 대책으로 등교 수업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여름방학 기간에 각급 학교 교직원과 고3, 대학수학 능력시험(수능) 수험생 등의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등교 인원 확대에 대비해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하고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이동 검체팀을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면 등교를 목표로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내 집단감염)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2학기 전체 학생 등교 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생활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평가원 첫 시험 6월 모의평가 공통 과목은 어렵게, 선택 과목은 쉽게

2022학년 대입 수능을 앞두고 실시된 6월 모의평가는 공통 과목은 다소 어렵게, 선택 과목은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른바 수학 영역에서의 ‘인문 계열 불리’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게 입시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가 3일 전국 2천62개 고교와 413개 지정 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에서 처음 시도되는 ‘문·이과 공통’ 국어·수학 영역 방식으로 출제됐다. 먼저 공통 과목 변별력이 높아진 수학은 지난해 수능 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학은 공통 과목으로 〈수학 I〉 〈수학 II〉 선택 과목으로는 〈학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구성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인문 계열 희망 학생들은 공통 과목의 ‘킬러 문항’에서 고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서〉와 〈문학〉을 공통 과목으로 치르는 국어 영역은 독서 부분이 지난해 수능과 달리 지문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데다 생소한 형태도 등장해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남윤곤 메가스터



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진 3일, 강원 성수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적고 있다. © 연합

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국어는 새로운 수능 국어 영역의 구성과 문제 유형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면서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경우 우려와는 달리 선택의 유불리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어도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으며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직접 연계 문항을 제시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의·약대 지역 인재 40% 선발 의무화

2023학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 계열은 지역 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대학 의·약·간호 계열은 2015학년부터 지역 인재 선발을 권고받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3월 지방 대육성법을 개정하고 그 후속으로 시행령을 개정, 의무 선발 비율을 명시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 계열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규정됐다. 기존 지역 인재 선발 비율 권고 수준(30%, 강원·제주는 15%)보다 상향됐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 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

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으로 명시됐다.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증가해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으로 규정됐다.

지역 인재 요건도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졸업,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졸업,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했다. 다만 지역 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부터 적용된다.

취재 장세풍 기자 sjjang@naeil.com

살 것 없던 '급식 바우처' 구매 품목 늘린다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희망급식 바우처'의 구매 품목이 늘어난다. 품목 제한으로 인해 택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자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결과다.

시교육청은 희망급식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을 햇반, 국류(컵국), 김, 치즈, 삼각김밥, 생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급식 바우처는 원격 수업 학생의 결식 우려를 없애기 위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씩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20일부터 지급된 포인트는 7월 16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교육청은 애초 편의점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0개군(도시락, 제철 과일, 흰 우유, 두유, 채소 샌드위치, 과채주스, 샐러드, 떠먹는 요구르트, 훈제 계란, 삼각김밥 제외한 김밥)의 식품만 사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나트륨 1천67mg, 열량 990㎉ 이내, 단백질 11.7g이라는 영양소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포인트 지급 후 현장의 불만이 쏟아졌다. 도시락에 나트륨이 조금만 많아도 살 수 없고, 김밥은 가능하지만 삼각김밥은 안 되고, 떠먹는 요구르트는 살 수 있지만 마시는 요구르트는 못 사고, 생수는 아예 구매할 수 없다 보니 혼란만 가중되고 정작 쓰지도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비판에 시교육청은 구매 가능 품목에 햇반, 컵국, 김류, 치즈류, 삼각김밥, 생수를 포함하기로 했다.

숙명여대, 온라인 모의 논술 실시

숙명여대가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2022 온라인 모의 논술'을 실시한다.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기간 내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의 논술 전용 사이트에 답안을 작성하고 채점을 요청하면 된다. '최종 원료'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최대 1천200명 까지 온라인 모의 논술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모의 논술에서는 변경된 논술 문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가 제출하는 답안은 모두 논술 출제 교수가 채점한다. 숙명여대 입학처는 7월 16일 입학처 홈페이지에 채점 결과를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아쉽게 온라인 모의 논술에 응시하지 못했다면 채점 결과 발표일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함께 공개되는 온라인 특강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논술 출제 위원회 직접 참여해 2022 논술 출제 경향, 대비 전략, 기출문제 해설 등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부 문항을 포함해 인문 계열 2문항, 자연 계열 3문항으로 조정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숙명여대는 2022학년 수시 모집 '논술 우수자전형'으로 총 22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다.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2021 세계대학 학술순위' 세계 6위

세종대가 중국의 상해교통대학 고등교육원이 발표한 '2021 세계대학 학술순위(ARWU ·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2021)'에서 호텔관광학 분야 세계 6위에 올랐다. 지난해 세계 9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내 순위도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2003년부터 실시된 ARWU 세계대학 학술순위는 1천800개 이상의 대학이 평가 대상이며, 상위 1천 개 대학 순위가 발표된다. QS 세계대학 평가, THE 세계대학 평가와 더불어 3대 대학 평가로 손꼽히며, 주관적 평가 요소를 배제한 객관적 지표로 대학의 학술적 수준을 평가한다.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은 '2021 QS 세계대학 평가 분야별 순위'에서도 세계 40위,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승실대, 기초연구실 사업 3팀 선정

승실대는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에 3팀이 선정됐다. IT대학 이정현 교수팀, 이길호 교수팀, 공과대학 강수민 교수팀이 최대 6년간 매년 4억5천만~5억 원을 지원받으며 국가 R&D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 역량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정현 교수팀은 자율주행 기술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사이버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 구축을 위해 보안 기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길호 교수팀은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비용 플랫폼을 개발해 국내 개발자 생태계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승실대는 향후 5년간 약 350억 원을 투자해 AI융합 분야 육성 인프라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